

목표달리시



군산시, 조피볼락 감성돔종묘 방류

군산시는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기반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너도, 관리도, 말도 및 개어도 해역에 조피볼락, 감성돔종묘 90여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조피볼락, 감성돔, 전복, 해상 등 약 225200만 마리를 방류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바다숲 조성해역 확대, 수출을 위한 해상양식 단지 조성, 인공어초 및 투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패류 서식 공간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임피면 공한지 감자수확 나눔 행사

군산시 임피면은 '공한지 작물 재배를 통한 시민의 이웃 나눔 행복 이어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공한지 약600㎡(200평)를 활용해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고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임피면은 이웃 나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연초 자체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부터 직원을 비롯한 노인자리 참여자 등과 함께 감자밭을 조성하고 키웠다.

이번에 수확한 감자 70여박스는 관내 경로당 34개소 및 어려운 이웃에 전달됐다.

전종신 임피면장은 "이 사업은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눔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따뜻한 이웃 나눔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서울시 학교 급식용 군산쌀 공급량 매년 지속 증가

군산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직접 공급해 고가격을 실현함에 따라 '서울시 학교 급식용 군산쌀' 공급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군산쌀의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 계약 현황을 보면 849톤(22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801톤(21억5100만원) 대비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학교 급식에 군산쌀을 공급하기 시작해 해마다 공급량을 확대해 온 결과 201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3510톤, 약 95억원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량을 해마다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유통과 직원들로 홍보반을 편성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구청 및 교육청,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용 쌀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경찰중앙지구대 교통안전 총력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근)는 최근 급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장단 회의에 참석, 교통사망사고예방 홍보에 주력하는 등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김용근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관내 중앙·남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통장 200여명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방안이 담긴 전단지 배부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범죄 우려되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중앙지구대는 순목형 아광밴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정동원체어 및 자전거는 아광반사지를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대상 음주갑질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③지역관광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관광객 맞이 인프라 구축 맞춤형 준비 필요

군산 지역경제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회복이 엇갈리는 등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제침체의 골이 깊은 현 시점에서 관광사업으로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군산 경제는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하락 등으로 침체하고 있는 반면, 근대역사민광벨트화와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앞세운 관광사업이 지역 경제에 호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군산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관광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발전 방안을 다룬다. (편집자 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주말이 되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자를 찾아 떠난다.

이들은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 2시간이면 군산까지 올 수 있으며 대부분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하지만 군산에는 1~2시간 단위로 묵을 수 있는 펜션, 콘도 등의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및 기초시설도 태부족하다.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이 방문해도 인도는 인근에는 이들을 맞을 대형 식당과 주차장이 부족하다.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 한 곳만으로도 게스트하우스, 식사, 관광인프라 등 가족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다.

원 도실에서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남)씨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미흡한 최

글 쓰는 순서

- ①위기의 군산경제
②군산 관광산업의 현주소
③지역관광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산항으로 입국해 군산에 체류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중국인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1만 3500명이며, 올해 5월 현재 9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군산을 오가는 국제케페리 운항횟수가 증편되며 중국인의 군산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산~새만금지역에 서해안 최



대의 산업단지로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추진, 한중간 경제협력에 활성화 되면 물류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들은 군산에 체류하지 않고 대부분 쇼핑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다.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군산에 면세점과 대형쇼핑 공간이 없어 요우 커터를 놓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형쇼핑공간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산시는 지립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 증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에 살자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립도시 건설에 필요한 최소 인구는 50만명이 필요하지만 군산시 인구는 5월말 27만 8889명으로 계속 제자리걸음 중이다"며 "군산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를 지향하며 활황을 누리다 경제 침체의 여파로 위기를 맞은 군산경제는 이제 새로운 발전 패

라다임을 찾는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군산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문화도시로써 새로운 도약을 요구된다.

한 관광산업 전문가는 "군산시도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해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군산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여야한다"며 "너 많은 볼거리와 잘 조성된 관광명소, 풍성한 체험 거리,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 찾아 떠나는 여행 패턴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농부의 식품공장' 농가수익 '효자'

6월까지 판매액 1억 4,000여만원... 무선탕 블루베리잼 · 쌀조청 인기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이 활기를 띄며 농가수익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이 개별 제조가공시설이 없이도 농식품 창업에 도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식품공공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공제품의 표준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농가에 기술을 이전해 지난해 4월 블루베리잼 등 5개 제품을 출시했다.

가공제품의 첫 선을 보인지 1년여가 지난 현재 36개 농가에서 잼, 조청, 환 차, 분말류 등 22개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육산로컬푸드, 박물관로컬푸드, 특산물판매장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판매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갈수록 그 판매액이 늘고 있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블루베리잼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군산쌀로 만든 쌀조청은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최근 그 가능성이 많이 알려진 울금, 작두콩, 여주, 아로니아,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등을 건강에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차와 분말, 환제품으로 가공, 소포장하여 판매를 시작해 농가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농부의식품공장'에 대한 관심과 가공 수요가 많아지면서 선유도 마을기업에서도 합초소금과 구운소금 세트상품을 출시해 우리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상품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농부의 식품공장'은 가공기술 개발 운영체제, 농업인 조직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용능력과 제품이 늘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올해에만 40여개 시·군의 공무원과 농업단체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다녀가는 등 견학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 농가수익 창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병원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기초우수 학술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호흡기내과 김학렬(사진) 교수가 최근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된 제42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암 컨퍼런스에서 기초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6개국 1,500명이 넘는 암 연구자들이 참가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폐암에서 AKT-Survivin 경로 제어를 통한 Sunitinib과 Simvastatin의 병합 상승 효과 연구라는 주제로 기초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그 동안 김학렬 교수는 폐암분야에서 새로운 항암제 발굴과 내성기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병원특

성화사업의 폐분야 책임자로 중개연구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사업 및 보건으로 폐질환 T2B7연구추진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폐암관련 연구 분야에서 파인용 지수(Impact Factor) 상위 저널들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원광의과 학연구소 소장 및 중환자실장으로 폐암환자에 대한 기초·임상연구 및 진료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암학회는 1988년 대한암연구회로 창립된 이후 기초적 암 연구와 임상적 연구의 균형을 맞추어 국내 암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의학자와 기초과학자를 포함하여 회원이 약 1,8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는 지난 1년 동안 대한암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원광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사업 힘찬 출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ERIME) 사업 출범식이 지난 27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프라임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성과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광 윈드인상들의 식전 공연에 이어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 소개로 시작된 출범식은 참석자들의 버튼 터치로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21개 대학에 각각 사업단 현판이 전달됐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산업 및 미래유망 분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대형에 원광대 등 9개 대학, 소형에 건양대 등 12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자율적으로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함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등 대학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특색과 연계해 농생명 & 스마트기계·소재산업 인력양성

을 목표로 대형유형에 선정된 원광대는 3년 동안 총 480여 원을 지원받으며, 농생명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생명자원과학대학을 농식품융합대학으로 개편하고, 스마트기계·소재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을 창의공과대학으로 개편해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함께 진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초등학생 탐사단 의견 청취

정현을 익산시장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우리 동네 탐사단의 시정 제언 발표 자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동네 탐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산 초등학생 28명과 지도교사 6명은 28일 오후 익산시청을 방문해 시정에 반영할 제안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시정으로 바리본 지역사회의 불편사항으로 유해환경 시설 개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차 단속, 공원 내 화장실 유리창문 및 변기 수리, 불법쓰레기 수거 및 단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 및 도로 보수 등의 37개의 제안이 발표되었다. 정현을 시장은 어린이들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어린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작은 건의사항이라도 적극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제안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생각이 존중받았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우리동네 탐사단은 2012년부터 (사)길청소년연구소와 초·중·고교 연계한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이다. 10주간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정 등에 제안해 오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